

1970년대-1990년대 분도소책(분도출판사)

총서 디자인 연구

The Series Design of

Benedict Mini Books Series(Benedict Press) from the 1970-1990s

주저자 First Author: 구민호 Gu Minho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Ph.D. Program, Yeungnam University

교신 저자 Corresponding Author: 정재완 Jeong Jaewan

영남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Yeungnam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2. 본론

2.1. 73권의 분도소책: 서지 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2.2. 표지 디자인(장정) 연구 분석

3. 결론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092-08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학술대회 기획 논문 Academic Articles from the Conference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092093

요약

분도출판사는 성 베네딕도회 왜관 마오로 플라치도 수도원이 설립한 출판사이다. 성 베네딕도회의 출판 사업은 약 115년에 달한다. 정식 출판 등록을 기준으로 한 분도출판사의 역사만 하더라도 60년이 넘는 시간이다. 기나긴 분도출판사의 출판 역사 속에서 분도소책은 가톨릭 출판사인 분도출판사의 신학적 토대를 다졌다는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학 소책자로 기획됐지만, 27년 동안 발행한 73권에 달하는 총서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논문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분도출판사가 발간한 분도소책을 출판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먼저,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출판물의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써 간기의 확장을 제안한다. 간기의 확장은 수치 정보, 행위 정보, 인적 정보의 세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번역서가 주를 이루는 분도소책 총서의 특징에 따라, 원서의 디자인을 충실히 옮긴 '번안'과 반대의 경우인 '재구성'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분도소책의 출판 디자인을 분류하고 면밀히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 출판 디자인의 의미 있는 장면들을 포착해 기록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기반한 출판 디자인 역사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핵심어

분도소책, 분도출판사, 출판 디자인, 1970-1990년대, 지역 디자인, 아카이브

Abstract

Benedict Press was established by the Order of St. Benedict Waegwan Abbey of Mauro Placido in Korea.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the Benedictine Order span over 115 years, while Benedict Press, as a formally registered entity, boasts a history of more than 60 years. Within this long tradition, the Benedict Mini Books Series holds a unique place; having solidified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this Catholic publisher. Originally conceived as concise theological booklets for accessible reading; the series comprises an impressive 73 volumes published over 27 years, embodying significant scholarly weight.

This paper examines the Benedict Mini Books Series published by Benedict Pres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through the lens of publication design. The researcher proposes an expanded concept of the "colophon" as a method for multifaceted and objective analysis of publications. This expanded colophon categorizes information into three types: numerical data, operational details, and personnel information. Furthermore, given that translated works dominate the Benedict Mini Books Series, the study introduces two contrasting concepts—"visual translation" (faithful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design) and "redesign" (creating a distinct design from the original)—to classify and analyze publication designs.

Additional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study of regional publication design history by documenting and examining significant moments in local publication design,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Keywords

Benedict Mini Books Series, Benedict Press, publication design, 1970-1990s, regional design, archive

1. 서론

1.1. 연구 배경

분도출판사¹는 성 베네딕도회 왜관 마오로 뵐라치도 수도원(Ordery of Saint Benedict Waegwan Abbey)이 설립한 가톨릭 출판사다. 1909년 독일의 성 오틀리엔 베네딕도 선교수도회(Benedictine Congregation of Saint Ottilien)에서 서울로 수도자 두 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 원산과 만주 지역을 거쳐 1952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터를 잡았다. 전통적으로 문서 선교를 중요시하는 성 베네딕도회는 1910년 베네딕트(Benedict) 성인의 행적을 서술한 『성분도언행록(聖芬道言行錄)』을 펴내며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1962년에 정식 출판 등록을 한 분도출판사는 1972년 임인덕 하인리히 세바스티안 로틀러(Heinrich Sebastia n Rotler) 신부²가 출판사의 책임 신부³로 부임하면서 전에 없던 전성기를 맞았다. 분도출판사는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분도그림우화’와 ‘분도소책’ 시리즈, ‘신학총서’ 등을 펴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1975),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1975) 등 쉘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우화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소설가 권정생과 교류하며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1985), 『초가집이 있던 마을』(1985)을 출간했다. 분도출판사는 시인 이해인 수녀와 김지하, 판화가 이철수, 사진가 최민식 등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출판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에 목마른 소리』(1973), 『평화혁명』(1974), 『해방신학』(1977) 등을 통해 독재 정권 시절, 빈부격차와 특권층의 지배를 비판한 라틴아메리카의 사상을 전파하기도 했다. 성 베네딕도회의 출판 사업은 『성분도언행록』을 출판한 1910년을 기점으로 그 역사가 약 115년에 달한다. 정식 출판 등록을 기준으로 해도 60년이 넘는 시간이다. 기나긴 분도출판사의 출판 역사 속에서 ‘분도그림우화’와 ‘분도소책’은 분도출판사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분도소책은 가톨릭 출판사인 분도출판사의 신학적 토대를 다졌다는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분도소책은 분도출판사가 1971년에서 1998년까지 발행한 분도출판사의 대표적인 총서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분도소책의 총서 디자인을 출판 디자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출판 디자인 역사를 살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연구자, 교육자로서 항상 견지하려는 태도는 바로 ‘멀리 유럽이나 서울이 아니라 직접 발 디디고 있는 주변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다. 분도출판사는 연구자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 전성기의 분도출판사는 20여 년 동안 4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당시에 분도출판사와 협업한 예술가들을

094095

나열해 보면, 김지하 시인, 이철수 판화가, 오윤, 홍성담 화가, 그리고 정병규 복디자이너도 등장한다. 이 연구는 지역성에 기반한 출판 디자인 역사 연구의 단초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한국디자인사 서술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나아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의 출판물 디자인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971년부터 1998년까지 분도출판사가 발간한 분도소책을 출판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객관적인 출판 디자인 분석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분도소책의 몇몇 특징적 장면들을 포착하고 심층적으로 서술한다.

분도출판사는 27년에 걸쳐 73권의 분도소책을 간행했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그만큼 적지 않은 수가 발행된 총서이다. 분도소책 73권 중 분도출판사 웹사이트⁴와 기타 중고 서적 판매점 등을 통해 연구자가 입수한 분도소책은 총 44권이다. 나머지 분도소책에 대한 정보는 ‘가톨릭신문’ 웹사이트⁵의 신간 안내 정보와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⁶에 남아 있는 분도소책 정보 등을 통해 수집했다. 실물이 있는 분도소책의 원서 정보는 책 속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했고, 실물이 없는 책의 원서 정보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분도출판사의 전반적인 정보들은 권은정이 집필한 임인덕 신부의 평전 『책으로 노래하고 영화로 사랑하다』(2012)과 요하네스 마르의 『분도통사』(2009),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의 웹사이트⁷ 등을 통해 수집했다. 또한, 분도출판사의 5대 책임 신부인 선지훈 라파엘 신부⁸를 비롯한 분도출판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의 밀도와 객관성을 높였다.

분도소책 총서 출판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인 만큼 몇 번의 재판 인쇄를 거치며 인쇄 방법, 종이의 선택, 제책의 형식 등 외형적 조건의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그동안 분도소책의 출판 디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했고, 그 당시 분도출판사의 출판 디자인 사정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분도소책의 시각적 정보를 나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도소책이 가진 시각적 특징들을 분류하고 나열한 다음, 그로 인해 도출한 정보들을 매개로 분도소책 각 권이 가진 디자인적 특징과 가치를 밀도 있게 서술했다.

정리하자면, 분도소책 총서 디자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관찰, 문헌 검토, 인터뷰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해 혼합 방법론적 접근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73권의 분도소책: 서지 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출판 디자인 연구를 위해서 선행해야 하는 일은 서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출판물의 서지

- 1 분도(芬道)는 베네딕트(St. Benedict) 성인의 한자식 표현이다. 분도출판사는 왜관 본사와 서울 자사로 나누어져 있다. 왜관 본사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 안에 있다. 지금은 왜관 본사가 인쇄 및 제책을 담당하는 인쇄소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출판사의 역할은 서울 지사가 담당한다.
- 2 임인덕 하인리히 세바스티안 로틀러 신부(1935~2013)는 뷔르츠부르크와 뮌헨에서 신학과 종교심리학을 공부한 후 1966년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46년간 출판과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 복음화에 힘썼다. 1972년~1993까지 분도출판사의 책임 신부로 일했다.
- 3 책임 신부는 분도출판사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신부를 뜻한다. 분도출판사는 왜관 베네딕도 수도회의 출판 브랜드로, 당대의 ‘아빠스(수도원장)’가 출판사의 대표이자 발행인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 출판사 대표의 업무는 책임 신부가 수행한다.

- 4 분도출판사 <https://www.bundobook.co.kr> (2024.9.16.)
- 5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 (2024.9.21.)
- 6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library.catholic.ac.kr> (2024.8.24.)
- 7 성베네딕토회왜관수도원 <http://osb.or.kr> (2024.9.3.)
- 8 선지훈 라파엘 신부는 1999부터 2013까지 분도출판사의 5대 책임 신부로 재직했다.

기술은 판권면이라고 지칭하는 지면을 통한다. 판권면(版權面)이라는 용어는 영어식 표현인 ‘Copyright Page’와 뜻이 비슷하다.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 주로 출판사와 저자의 출판 관계나 권리를 표기하는 목적으로 기술한다. 판권기(版權記)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간기(刊記)라는 단어가 있다. 간기는 책을 간행(刊行)한 기록(記錄)이다. 판권기와 간기가 둘 다 서지요소를 기술한다는 면에서는 뜻이 맞닿으나, 풀어 해석하면 ‘출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과 ‘출판 행위’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판권기에 기재 사항은 제목, 저자, 편자, 역자, 발행처, 인쇄소, 발행일자, 책차, 판차, 가격, 저작권 등 발행 상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아쉽게도 출판 디자인 연구에 필요한 시각 요소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빠져 있다. 그 때문에 출판물의 시각적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는 간기의 기술, 특히 시각적 서지요소를 포함한 넓고 세세한 간행기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출판물의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간기의 확장을 제안한다. 간기 기술의 확장은 다음과 같이 수치 정보, 행위 정보, 인적 정보의 세 가지로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수치 정보란,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나 날짜 등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들을 분류한 것이다. 행위 정보는 주로 책을 만드는 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이다. 서체와 종이의 선택에서부터 인쇄와 제본 방식, 본문 레이아웃까지 출판물을 디자인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한다. 책의 물성을 구현하는 필수 요소들인 만큼 출판 디자인 연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정보들이지만, 기존 판권기에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적 정보는 출판 과정에 참여한 인물과 단체의 표기, 출처나 권한의 표기,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삽화나 사진의 출처 등을 기술한다. 정확하게 대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나, 연구 대상의 발행 시기에 따라 복디자인을 장정, 복디자인어를 장정가라 바꿔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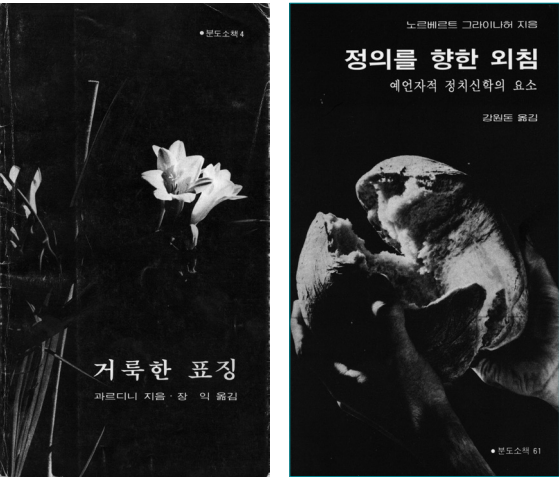
분도소책은 판형과 책등의 레이아웃 형식, 서체 크기와 행간 비율 등 몇몇 큰 틀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 디자인 요소가 유동적이다. [그림 1]과 [표 2]를 통해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 1976)과 『정의를 향한 외침: 예언자적 정치신학의 요소』(분도소책61, 1994)의 간기 기술 확장 표를 도판과 함께 표본으로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한 『거룩한 표징』은 1984년의 판본이다. 반면, 『정의를 향한 외침』은 1994년 발행한 초판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책의 시각적 구성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책날개의 유무와 종이의 사용, 활자 너비의 비율, 활자 크기, 판권기의 기재 위치 등 여러 가지 시각 정보들이 바뀌어져 있다.

수치 정보	
기존 판권기 정보	초판 발행일, 현재 책차 발행일, 책차와 판차, ISBN, 출판사 등록일, 가격
추가 수치 정보	판형, 쪽수, 책등 너비, 책날개(수치), 표지와 본문의 인쇄 도수, 서체 크기, 본문의 마진, 본문 글줄의 너비, 본문의 행수(딱 한 지면 기준)
행위 정보	
기존 판권기 정보	-
추가 행위 정보	서체, 종이, 인쇄 방식, 제본 방식, 후가공, 책날개, 띠지 혹은 케이스, 출판사명(로고) 표기 방식, 글자의 쓰기 방향, 본문 정렬 방식, 본문 레이아웃의 특징, 각주 표시와 주석 등 본문 외 정보 표기 방식
인적 정보	
기존 판권기 정보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저자·역자·편집자·기획자 등 인적 자원 표기, 주소, 연락처, 출판권·저작권 등 권한 명시
추가 인적 정보	복디자이너, 삽화가 또는 사진가, 삽화나 사진의 출처

[표 1] 간기의 확장: 세 가지 유형의 분류 체계

096097

있는 표지를 구성했다. 그러나 표지를 구성한 작업자의 이름 표기나 사진의 출처 표기와 같은 시각 작업자의 인적 정보 표기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분도소책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거룩한 표징』에서 책날개에 장정 및 삽화 사진을 박 매리 다니엘 수녀로 표기한 것과 대조된다. 가장 오래된 분도소책은 1971년 간행한 6권 『토마스 모어: 세속 안에서의 자유』이고, 가장 최근은 1998년 출판한 73권 『예수님은 불가능의 주인이시다』이다. 이처럼 발행 시기가 연구 시점에서 최소 20년, 최대 50년 전이고, 기록이나 증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서체와 종이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확한 명칭 대신 스타일이나 분류체계 등의 묘사로 대체한다. 서체는 부리(Serif), 민부리(San Serif), 서예(Calligraphy), 손글씨(Handwriting), 제목용 서체(Display) 등 스타일을 묘사하고, 종이는 도공지(Coated Paper), 비도공지(Uncoated Paper), 미랑도공지(MFC Paper), 특수가공지(Specialty Paper) 등 가공방식별 인쇄용지 분류 체계를 사용해 설명한다.



[그림 1]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 1976)의 1984년 판본과 『정의를 향한 외침』(분도소책61) 1994년 초판 발행본

『거룩한 표징』 수치 정보	
판형	110mm×19mm
내지 두께	80g/㎡ 미만
표지 두께	120g/㎡ 내외
책등 너비	4.5mm
책날개 너비	80mm
서체 크기	8pt 내외
글자폭	100%
본문 마진	위: 23mm, 아래: 32mm, 안, 밖: 15V 내외
글줄 너비	80mm
본문 행수	24행
쪽수	92쪽
발행년도	1976년 초판
비교 판본의 발행 년도	1984년(6판)
원서 발행 년도	1961년
ISBN	89-419-7129-2 02230(1984년 판본에는 기재하지 않음)
값	1,000원

거룩한 표징』행위 정보	
본문 서체	부리 계열
표지 서체	부리 계열 제목 서체 (저자·역자 정보: 민부리 계열)
내지 종이	비도공지(텍스트) + 도공지(사진)
표지 종이	도공지
인쇄 방식	활판 인쇄 및 석판 인쇄 추정
표지 후가공	없음
책날개	80mm 너비의 날개, 앞날개: 책 소개 및 장정 및 사진 출처 표기 뒷날개: 분도소책 시리즈 목록
출판사명 표기 방식	심볼 마크 + 부리 계열 글자
쓰기 방향	가로 쓰기
본문 정렬	양끝 정렬
특징	비도공지와 도공지로 나누어 텍스트와 사진을 인쇄했다. 비도공지로 된 텍스트 지면 사이사이에 도공지로 인쇄한 사진 지면이 등장한다.
비고	권미에 판권기 삽입, 책날개에 분도소책 시리즈 목록 삽입
『거룩한 표징』인적 정보	
퍼낸이	이동호 아빠스
출판사 및 제책	분도출판사
책임 신부	임인덕 세바스티안 로틀러 책임 신부
저자	로마노 가르디니(Romano Guardini) 지음
역자	장익 옮김
주소	(633)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4의 1 (왜관 본사 외 서울 지사와 부산 지사 정보 삽입)
장정 및 사진	박 매리 다니엘 수녀(포고 성 베네딕도 수녀회)
원서 명	Von heiligen Zeichen(1923년 저술한 책의 1961년 판)
원서 출판사	Matthias-Grünewald-verlag
원서 출판 지역	Mainz, Germany
『정의를 향한 외침』수치 정보	
판형	110mm x 195mm
내지 두께	80g/m ² 내외
표지 두께	160g/m ² 내외
책등 너비	8mm
서체 크기	9pt 내외
글자폭	100% 미만
본문 마진	위: 28mm, 아래: 27.5mm, 안, 밖: 15mm
글줄 너비	80mm
본문 행수	24행
쪽수	192쪽
발행년도	1994년 초판
비고 판본의 발행 년도	1994년(초판본)
원서 발행 년도	1986년
ISBN	89-419-9419-5 02230
값	3,200원

『정의를 향한 외침』행위 정보	
본문 서체	부리 계열
표지 서체	민부리 계열 제목 서체 (소제목: 부리 계열)
내지 종이	비도공지
표지 종이	도공지
인쇄 방식	오프셋 인쇄
표지 후가공	무광 코팅
책날개	없음
출판사명 표기 방식	심볼 마크
쓰기 방향	가로 쓰기
본문 정렬	양끝 정렬
특징	부리 계열 본문 서체를 기본으로 굵은 서체와 민부리 계열 서체, 영문 이탤릭 서체를 사용해 강조. 민부리 계열 서체로 되어 있는 쪽수 표기 앞, 뒤에 꺾인 화살 괄호를 뒤 집어 삽입해 장식했다. (예: >192<)
비고	표제지 뒷면에 판권기 삽입, 권미에 분소소책 시리즈 목록 삽입
『정의를 향한 외침』인적 정보	
퍼낸이	이동호 아빠스
출판사 및 제책	분도출판사
책임 신부	강순건 안토니오 책임 신부
저자	로마노 노르베르트 그라이나허(Norbert Greinacher) 지음(Romano Guardini) 지음
역자	강원돈 옮김
주소	(718-80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4의 1 (왜관 본사 외 서울 지사 정보 삽입)
장정 및 사진	미상
원서 명	Der Schrei nach Gerechtigkeit: Elemente einer prophetischen politischen Theologie
원서 출판사	R. Piper GmbH & Co. KG
원서 출판 지역	München, Germany

[표 2] 세 가지 분류 체계를 활용한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 1984년 판본)과 『정의를 향한 외침』(분도소책61, 1994)의 출판 디자인 분석

분도소책은 간편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판형은 가로 110mm가 세로 195mm로 일반적인 단행본보다 가로 폭이 좁다. 책의 제본 방식은 무선 제본으로, 100g 미만의 두껍지 않은 내지를 160g-200g가량 표지로 묶었다. 초기 판본에서는 낮은 평량의 종이를 사용해 책이 더 부드럽게 휘어진다. 또, 가장 얇은 책은 분도소책 1권인 『日常(일상): 神學斷想(신학단상)』(1980)으로 56쪽이고, 가장 두꺼운 책은 『예수의 기적』(1993)으로 214쪽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120쪽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가볍다.

분도소책의 판권기는 표기가 세세하지 못하고, 몇몇 지점에서는 오기를 하고 있다. 초기 판본들에서는 표제지 뒷면에 원서 제목과 저자를 원어로 표기하기도 하나, 권말에 있는 판권기에는 대개 저자를 표기하지 않고, 역자나 역은이의 이름만을 비중 있게 표기한다. 또한, 지금까지 적어도 네 번 이상 종이의 재질이나 인쇄 방법, 조판 등을 수정한 재판 인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통하고 있는 가장 최근 판본에서는 ‘쇄차’만 기록하고 있다. 이마저도 ‘쇄’를 ‘판’으로 오기한 것들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의 판권면은 ‘1976년 초판’, ‘1984년 6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8년 동안 6번의 재판 인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6쇄’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분도소책이 여러 번 재판 인쇄를 거쳤다는 증거는 종이와 서체, 인쇄 방법 등 여러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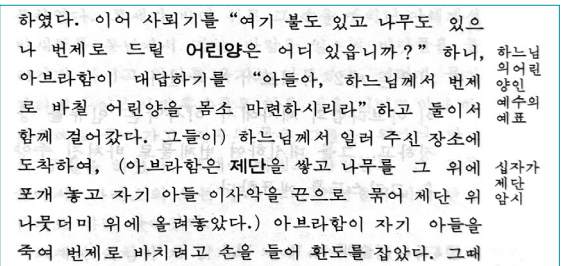
발견할 수 있다. 『거룩한 표징』의 1984년 판본은 표지에 도공지를 사용했고, 80mm 폭의 책날개가 있다. 반면 2019년 판본은 책날개가 없어지고 표지에 역시 도공지를 사용했지만, 유광 코팅이 더해졌다. 책의 내지 구성에도 차이가 있는데, 1984년 판본은 글과 사진을 나눠서 글은 비도공지에, 사진은 도공지에 인쇄한 반면, 2019년 판본은 글과 사진을 같은 비도공지에 인쇄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판본부터는 전체적으로 책날개가 없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 1990년대 초반 판본들의 경우 격자무늬 결이 있는 특수가공지를 표지에 사용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최소한 네 번 이상 종이 재질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 1984년 판본과 2019년 판본

글자의 쓰기 방향, 특히 본문의 쓰기 방향을 기록하는 것은 출판물의 발행 시기와 쓰기 방향 선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초기 분도출판사의 출판은 독일인 선교사와 독일인 인쇄공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가로쓰기로 본문을 조판했다. 반대로 현재의 세로쓰기 조판은 인쇄 방식의 제약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서체의 선택과 조형적 아름다움에 기인한다.

본문의 정렬 방식과 각주나 쪽수 표기 등 본문 외 정보 표기 방식 역시 출판 디자인을 분석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을 왼쪽 정렬로 정렬하고 오른쪽 끝을 단어 간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흘리는 방식의 본문 정렬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방식이다. 문단의 양끝을 반듯하게 맞춰 정렬하는 균등배치를 전통적, 혹은 관습적이라고 한다면, 왼쪽 정렬한 조판 방식은 비관습적 본문 정렬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석과 같은 본문 외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분도소책 시리즈 중 대부분은 본문 밑에 번호를 매겨 본문과 비슷한 글줄 너비로 작게 주석을 표기한 반면,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분도소책3, 1980)는 예외적으로 각주를 표시할 글자를 본문과 다르게 두꺼운 민부리 글자로 강조한 다음 텍스트 박스와 바깥쪽 지면 사이의 여백에 작은 부리 계열 글자로 주석을 달았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관습적 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는 원서가 없는, 분도출판사의 기획으로 출판한 12권의 분도소책 중 한 권으로, 이러한 각주와 주석 표기가 저자의 요청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기록할 의미가 있다.



[그림 3]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의 각주와 주석 표기 방식

분도소책은 분도출판사가 1971년부터 1998년까지 27년간 간행한 일종의 신학 총서다. 진두지휘를 맡은 이가 독일인 선교사인 임인덕 책임 신부였던 만큼, 총 73권 중 66권이 해외의 신학 서적을 번역한 책이거나 신학 이론을 번역해 다시 엮은 책이다. 즉, 분도소책은 신학 총서이면서 대부분이 번역서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로 기입할 정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발행인	아빠스(수도원장)를 발행인으로 표기
책임 신부	실제로 출판사 대표직을 수행한 인물
간행 번호	분도소책의 시리즈 넘버
원서 정보	원서명, 저자명, 원서의 출판사, 발행년도, 위치 등

[표 3] 분도소책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 기재 사항

분도출판사는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의 출판 브랜드로 당대의 ‘아빠스(수도원장)’가 출판사의 대표이자 발행인이다. 그러나 실질적 출판사 대표의 업무는 책임 신부가 수행한다. 때문에 발행인과 책임 신부를 시기별로 나누어 기록할 필요가 있다. 분도소책의 첫 권인 『토마스 모어: 세속 안에서의 자유』(분도소책6)는 1962년 분도출판사의 출판 등록일을 기준으로 2대 사장인 주성도 코르비니안 슈레플(Corbinian Schräfl) 책임 신부의 재임기⁹인 1971년에 출간되었다. 분도소책 6권을 제외한 56권의 책을 임인덕 책임 신부의 재임기인 1972년-1993년 사이에 출간했고, 1994년-1998년까지 강순건 안토니오 책임 신부¹⁰의 지휘 아래 16권의 분도소책이 더 만들어졌다.

분도소책의 간행 번호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분도소책 6권 『세속 안에서의 자유』의 발행년도를 보면 알 수 있듯, 분도소책의 간행 번호는 책이 출간된 순서보다는 책을 기획한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분도소책은 번역서가 주를 이루는 신학 총서이므로, 당연히 원서의 정보 또한 중요하다. 분도소책의 원서 표기 방법의 변화도 흥미롭다. 분도소책의 초기 판본에서 원서 제목 글자의 미감을 그대로 표제지 뒷면에 구현하려는 시도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몇몇 권에서만 나타나고 계속 유지하지는 않았다.

9 주성도 코르비니안 슈레플(1901-1990) 신부는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분도출판사의 2대 책임 신부로 재직했다.
10 강순건 안토니오(1950-) 신부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분도출판사의 4대 책임 신부로 재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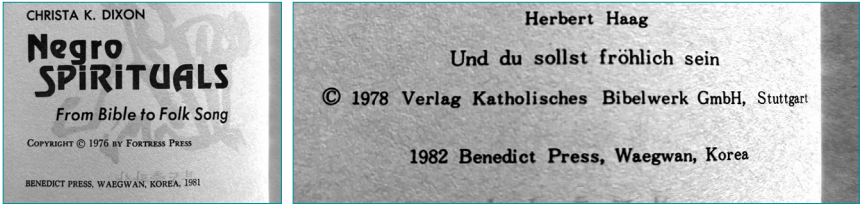
번호	분도소책	발행 년도
6	『토마스 모어: 세속 안에서의 자유』	1971
38	『산상설교』	1974
21	『선도: 깨달음의 길』	1974
20	『평화혁명』	1974
17	『하나님에 대한 욕의 물음』	1975
16	『가까이 계신 하느님』	1976
4	『거룩한 표징』	1976
2	『하씨담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길』	1977
18	『미사는 빠스카 잔치이다』	1976
12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네 가지 물음』	1976
31	『아브라함의 제사』	1978
1	『일상: 신학단상』	1980
3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	1980
5	『물허있는 보물: 비유와 단상』	1980
7	『도시의 광야』	1980
9	『나를 호렸구나: 성서의 성관』	1981
10	『흑인영가: 성경에서 민요로』	1981
11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의 기도문 해설』	1982
13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1982
14	『즐거워하라: 구약성서의 인생관』	1982
15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남미, 아시아 순방 연설집』	1982
19	『복되도다 믿으신 분: 나사렛 마리아와의 대화』	1983
22	『성서와 사회정의』	1984
23	『해방신학의 올바른 이해』	1984
24	『칼라너 - 그는 누구였나: 80년 생애와 사상을 되돌아보는 마지막 텔레비전 인터뷰』	1985
25	『요한 23세 小傳(소전)』	1985
26	『사막의 지혜: 사막 교부들의 말씀』	1985
27	『우리는 죽지 않을테니: 술제니쵸 소품집』	1985
28	『역사의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	1985
29	『예수에게서 복음서까지: 복음서의 형성 과정』	1985
30	『무덤이 없는 영원한 사람아: 보통 사람이 본 창세기의 인물과 모세』	1985
32	『생명과 음식: 식생활의 기본을 묻는다』	1985
33	『우정의 심리학: 友情(우정)의 本質(본질)과 그 價値(가치)』	1986
34	『행복하여라 다정한 사람들』	1986
35	『게으름의 찬양』	1986
36	『내가 나답게: 朴雅晴(박아청) 교수 心理斷想(심리단상)』	1986
39	『히로시마의 증인들』	1986
37	『우리 애들아 안녕!: 캄보디아인의 輓詞(만사)』	1986
40	『暴力(폭력)』	1987
41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모차르트에의 신학적 접근』	1988
42	『성서로 본 平和(평화)와 暴力(폭력)』	1988
43	『사람답게 살고자』	1988
44	『하느님의 役事(역사)는 계속된다: 신약성서 공동체들의 歷史神學(역사신학)』	1988
45	『성사와 그리스도인의 삶: 칠성사 해설』	1988
46	『누가 너의 형제냐?』	1988
47	『地球村(지구촌)의 信仰(신앙): 타인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989
48	『매뚜기의 기도: 타인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989
49	『인간을 위한 미래 건설』	1990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학술대회 기획 논문 Academic Articles from the Conference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번호	분도소책	발행 년도
50	『해방하는 복음: 성주간 부활 신비』	1990
51	『예수와 제자』	1990
52	『화해를 위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본 평화의 실천』	1990
53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방교회의 어느 수도자 지음』	1990
54	『예수 내 인생의 의미: 마르코에게 보내는 편지』	1990
55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 위기시대를 위한 평화정치와 창조윤리』	1990
56	『예수의 길 따라: 루가복음서의 “기행문”에 대한 묵상』	1993
57	『예수의 기적』	1993
8	『십자가의 길』	1993
58	『밥도 먹고 말도 하고』	1994
59	『예수의 마지막 날』	1994
60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트라피스트 수도생활』	1994
61	『정의를 향한 외침: 예언자적 정치신학의 요소』	1994
62	『인젠 말해야 할 비밀』	1994
63	『창조신앙: 하느님의 생태학』	1995
64	『영성 수련을 통한 내면의 변화: 개인성소』	1995
65	『사람은 왜 사는가』	1996
66	『생명윤리: 기초부터 알자』	1996
67	『무지의 찬양 무보수의 찬양』	1996
68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997
70	『뜨거운 마음으로: 엠마오 가는길』	1997
69	『성서에서 만난 변화의 표징들』	1997
71	『교회도 역시 달라지고 있다: 교회 안의 새로운 사권을 위하여』	1997
72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1998
73	『예수님은 불가능의 주인이시다』	1998

[표 5] 출판 년도순으로 나열한 분도소책 73권 목록



[그림 4] 원서 표기 방식의 변화: 『흑인영가: 성경에서 민요로』(분도소책10, 1981)와 『즐거워하라』(분도소책14, 1982)

2.2. 표지 디자인(장정) 연구 분석

함경남도의 덕원 성 베네딕도 수도원¹¹과 간도 지방의 연길 성 베네딕도 수도원¹²이 북한에 의해 해체된 후, 1952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다시 자리를 잡은 성 베네딕도회는 수도원의 건립과 동시에 인쇄 시스템을 부활시켰다. 독일의 성 오틸리엔 베네딕도 선교수도회로부터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실린더 인쇄기와 종이 절단기를 들여오는 한편, 식자 기사인 로코 시벨 수사를 파견했다. 1959년 전후로 뮌스터슈바르작(Münsterschwarzach) 수도원에서

11 덕원 성 베네딕도 수도원: 1927-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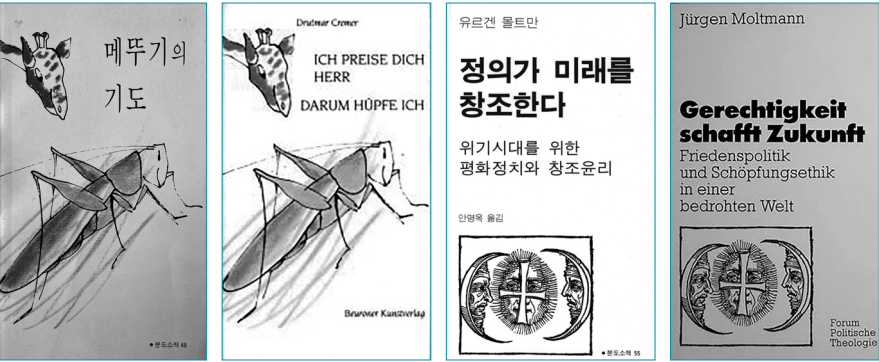
12 연길 성 베네딕도 수도원: 1928-1946

전문 출판 경영 교육을 받은 심이소 이소 사이빌러 신부¹³와 덕원 수도원 시절부터 뛰어난 제본 기술로 수많은 인쇄물을 다뤄 온 백오리 비토 슈텅거(Vitus Stenger) 수사가 한국으로 재파견되었다.

독일제 기계들과 독일식 제책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인쇄·출판 시스템을 갖춘 분도출판사였지만, 아쉽게도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은 인력은 부족했다. 분도소책의 총서 디자인 역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책의 판형과 본문의 마진 같은 기본적인 제작 사용을 제외하고는 일관된 미감이 없다는 것이 분도소책 총서 디자인의 특징이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편집자와 인쇄소 인력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때로는 미술 교육을 받은 몇몇 관계자의 손에 맡겨지기도 했다.

분도소책의 표지 디자인은 대체로 이미지 친화적이다. 글자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주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사진이나 판화·삽화 등을 이용해 표지를 구성했다. 이는 해외의 생소한 신학 이론을 국내에 유통해야 하는 분도출판사의 입장과 잘 맞아떨어졌다. 특히, 번역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도소책의 경우, 이러한 디자인의 현지화(design localization) 전략은 상대적으로 쉬운 해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분도소책의 표지 디자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원서의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원서의 삽화나 사진 등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분도소책의 표지에 이식하는 방법을 택했다.

『메뚜기의 기도: 타인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분도소책48, 1989)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 위기시대를 위한 평화정치와 창조윤리』(분도소책55, 1990)의 표지를 원서와 비교해 보면 삽화의 비율과 위치, 글자의 배열과 색상 등 많은 요소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서의 미감을 그대로 가져온 표지 디자인을 ‘번안(飜案, visual translation)’이라고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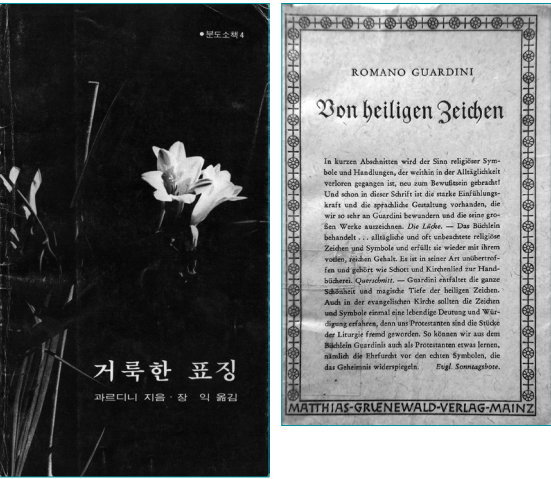


[그림 5] 『메뚜기의 기도』(분도소책48, 1989)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분도소책55, 1990)

원서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앞선 예시와 다르게 『거룩한 표징』의 표지는 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로마노 과르디니(Romano Guardini)가 1923년에 저술한 책을 마티아스-그뤼네발트 출판사(Matthias-Grünwald-Verlag)가 1961년에 다시 펴낸 책이다. 고전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세리프 서체와 일부 블랙레터 스타일 서체를 섞어 표지를 구성했다. 분도소책 4권 『거룩한 표징』은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의 박 메리 다니엘 수녀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표지뿐만이 아니라 내지에서도 성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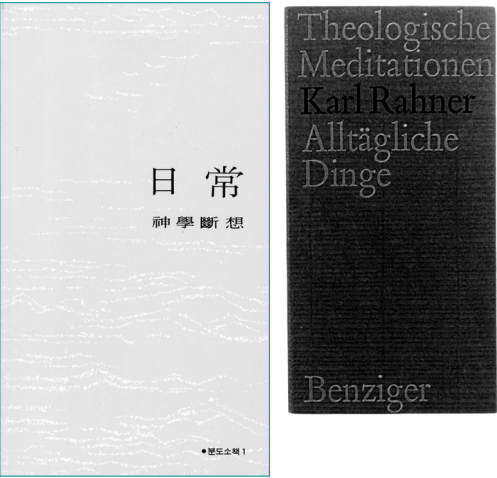
104105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인상적으로 배치했다. 당시 출판사 책임 신부였던 임인덕 신부는 사진과 영상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책에 사진을 사용한 미감을 입혔다. 사진과 삽화는 글자로만 되어 있는 표지 디자인보다 대중을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표지 디자인에 투영했다.



[그림 6] 『거룩한 표징』(분도소책4) 1984년 판본과 원서 표지 디자인

분도소책 1권 『日常(일상): 神學斷想(신학단상)』(1980)은 테올로기셰 메디타치오넨(Theologische Meditationen; 신학적 명상)의 5번째 출간물을 번역한 책이다. 이 시리즈 간행물은 스위스에 있는 벤찌거 출판사(Benziger Verlag)가 발행한 것으로, 분도소책은 이 시리즈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네 번이나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표지와 서체의 색상 외에 모든 디자인 요소가 똑같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도소책은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이미지를 고안해 표지를 구성해야만 했다. 다만, 『日常(일상): 神學斷想(신학단상)』의 내지 삽화는 원서와 같이 헨리 무어(Henry Moore)의 소묘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림 7] 『日常(일상): 神學斷想(신학단상)』(분도소책1, 1980)과 원서의 표지 디자인

13 이소 사이빌러 신부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분도출판사의 책임 신부로 일했다.

이와 같이 원서의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번안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표지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혀 다른 미감을 만들어 낸 경우를 여기서는 ‘재구성(再構成, redesign)’으로 명명하고 표지 디자인의 ‘번안’과 구분해 분류한다.

번안	원서의 미감을 바탕으로한 시각적 번역	17권
재구성	원서의 디자인을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해 전반적인 디자인 변경을 실행한 경우	36권
기타	번역서가 아닌 경우	13권
	미확인(원서의 디자인을 찾을 수 없음)	7권

[표 5] 접근 방식에 따른 번역서 표지 디자인의 유형

분도소책의 표지 디자인 중 ‘재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왜 표지 디자인을 재구성해야 했는지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은 ‘디자인 현지화’ 전략에 상충하는 원서의 표지 디자인이다. [표 6]에서 ‘재구성’으로 분류한 36권의 책 중에서 원서의 표지 디자인이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14권, 해당 주제에 맞는 사진이나 삽화 등 시각적 요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8권으로 총 22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거룩한 표징』은 원서의 표지 디자인이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진이나 삽화 등을 사용해 원서와 다르게 이미지화했다. 또한 『日常(일상): 神學斷想(신학단상)』은 원서가 시리즈 간행물에 해당해 주제에 맞는 시각 요소를 특정할 수 없다. 나열한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지 않은 예외적 상황은 원서의 표지 디자인과 관계없이 디자이너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 경우이다. 재구성에 속하는 표지 디자인 36점 중 14점에 달하는 표지가 여기에 속한다.

원인 1	(타이포그래피를 제외한) 시각적 요소의 부재	14권
원인 2	(시리즈 간행물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시각 요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8권
원인 3	(원인 1과 원인 2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	1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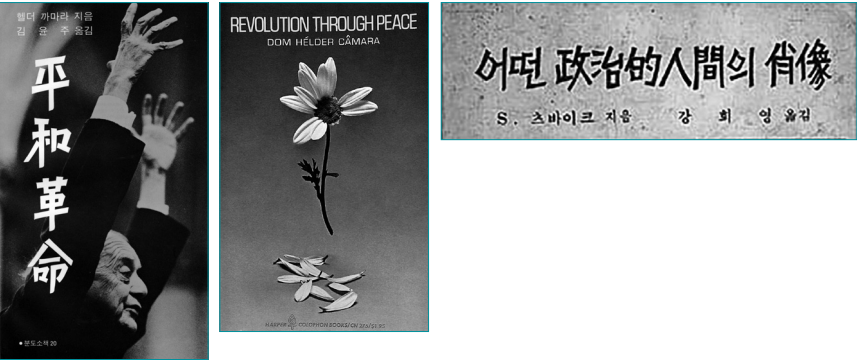
[표 6] 분도소책 표지 디자인 중 ‘재구성’에 해당하는 유형의 세 가지 원인 분석

『和平革命(평화 혁명)』(분도소책20, 1974)은 세 번째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다. 원서의 표지 디자인이 꽃 사진을 활용해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에 반해 분도소책의 표지는 헬 더 까마라 대주교(Dom Hélder Câmara))의 사진을 선동적으로 사용했다. 대주교의 팔을 따라 내려오는 한자 레터링의 조형적 완성도가 표지 디자인의 질을 한층 더 끌어 올린다. 『和平革命(평화 혁명)』은 책을 만든 디자이너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다. 책 속에 디자이너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도출판사의 5대 책임 신부인 선지훈 라파엘 신부에 따르면¹⁴ 표지와 제목 글자를 디자인한 이는 권녕숙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한 그와 그의 남편은 분도출판사 초기부터 오랜 세월 디자이너와 인쇄공으로 일했다. ‘和平革命’ 레터링은 활자체로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종종 그가 사용하던 글자 도안과 흡사하다. 1977년 분도출판사에서 출간한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의 책 『어떤 정치적 인간의 초상』 표지 글자 레터링을 보면 ‘和平革命’과 유사한 구조로 그린 글자 도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和平革命(평화 혁명)』은 각각 1973년, 1977년에 분도출판사가 출판한 『정의에 목마른 소리』와 『해방신학』을 잇는 헬더 까마라 대주교의 ‘해방신학’ 사상을 국내에 전파한 책이다.

14 2023년 5월 13일 순심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짧은 비공식 인터뷰에서 권녕숙과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06107

『해방신학』은 1970년대 분도출판사를 대표하는 단행본 중 하나로, 이와 궤를 같이한 『和平革命(평화 혁명)』 역시 분도출판사의 출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8] 『和平革命(평화 혁명)』과 원서의 표지 디자인, 『어떤 정치적 인간의 초상』의 표지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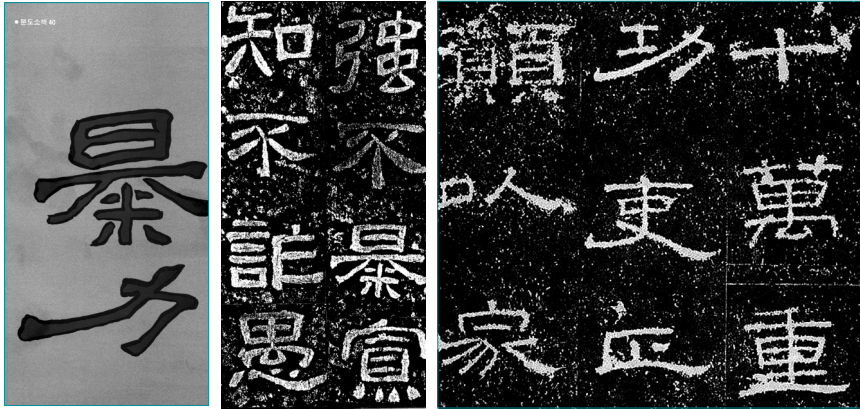
총 73권으로 구성된 분도소책 중 번역서는 61권이다. 원서가 없는, 다시 말해 국문으로 쓰인 책은 총 13권으로, 그중 저자가 온전히 글을 지어내 쓴 ‘저작(著作)’ 물은 7권이고, 신학을 다룬 해외 서적이나 연설을 모아 ‘편저(編著)’한 책이 6권이다. 총서를 아우르는 특정한 디자인 및 아트디렉팅이 보이지 않는 분도소책의 특성상 번역서와 국문서의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번역서를 디자인하며 쌓은 노하우를 그대로 국문서에 녹였다고 판단된다. 국문서의 표지 디자인 또한 번역서와 마찬가지로 사진과 삽화를 이용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분도출판사가 번역서가 아닌 책을 디자인할 때 어떤 접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과 번역서와는 달리 참고할 디자인 모티브가 없으므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국문서의 표지 디자인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역서	61권	
국문서	저작	7권
	편저	6권

[표 7] 분도소책 73권 중 국문서의 비중과 세부 분류

1987년 출간한 『暴力(폭력)』(분도소책40)은 장익 주교가 여러 신학 이론 중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엮어서 편찬한 책으로, 분도소책 중 원서가 없는 책 13권 중 하나이다. 이 책은 『和平革命(평화 혁명)』처럼 표지에 놓인 글자가 시선을 잡아끄는 책이다. 갈색 바탕에 예서체로 쓰여진 ‘暴力’이라는 한자 제목이 인상적이다. 글자는 바탕색보다 붉은색이 진하게 섞여 들어간 짙은 갈색에 검은색 테두리로 마무리했다. 검은 글자 테두리 역시 글자의 모양처럼 균일하지 않아 글자의 거친 질감을 한층 더 돋운다. 뒤표지에는 발췌한 글을 검은색으로 인쇄했다. 앞표지의 ‘분도소책’과 뒤표지의 분도출판사 심볼은 흰색으로 뒀다. 검은색 발췌문과 검은 테두리를 친 책 제목 간의 차이를 주기 위함이다. 각각 왼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작은 크기로 들어가 있어서, 이질감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강조되어 있다. 표제지 뒷면에 표지 장정가를 동현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동현주라는 이가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 글자에 대해, 특히 한자 서예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다. 표지에 각인된 ‘暴力’이라는 글자는 예서체의 대표적 견본인 서협송 비문과 사신비의 글자를 집자(集字)한 것으로 보인다.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서협송 비문

중 ‘强不暴寡 知不詐愚(강불포과 지불사우, 강하다고 약한 자를 압제 않고, 안다고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대목을 살펴보면 표지에 사용한 ‘暴(폭)’자를 찾을 수 있다. ‘力(력)’자 또한 168년-169년에 제작된 사신비(史晨碑, 혹은 사신전후비(史晨前後碑))에서 가져온 글자다. 그림에서 보이듯, 공로 ‘功(功)’ 자에서 장인 ‘工(工)’ 자를 제외하고 힘 ‘력(力)’ 자만을 따와 표지에 사용했다.



[그림 9] 『暴力(폭력)』(분도소책40, 1987)과 서협송 비문, 사신비

3. 결론: 분도소책의 총서 디자인 연구와 지역 출판 디자인 연구

이 연구는 분도소책 총서 디자인이 가진 면면을 때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심층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분도출판사의 출판 디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도소책은 분도출판사가 가진 본래 가치인 신학적 토대를 대중에게 드러낸, 말하자면 분도출판사의 밑거름이다. 분도소책은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학 소책자로 기획됐지만, 27년 동안 발행한 73권에 달하는 총서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분도출판사는 출판 디자인을 이끄는, 말하자면 아트디렉터가 없는 출판사이다. 이것은 분도출판사 출판 디자인의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했다. 일관된 미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독일의 인쇄, 제책 기술은 초기 분도출판사의 다양한 출판 디자인적 시도를 뒷받침했다. 특히, 성서 인쇄가 가능한 인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평량이 낮은 지면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와 같이 본문과 바깥쪽 지면 사이에 6pt 미만의 크기로 글자를 삽입하거나, 쪽수 표기에 특수문자나 기호를 사용해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분도소책의 총서 디자인은 1970년대, 1980년대 출판 디자인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 분도출판사의 그리고 분도소책의 몇몇 아름다운 지면 뒤에서 권녕숙, 박메리 다니엘 수녀와 같이 성당 역사 속에 숨은 실력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교를 매개로 한 넓은 인적 자원이야말로 분도출판사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분도그림우화’ 총서 디자인 연구, 최민식 사진 작가의 ‘HUMAN(인간)’ 사진집 시리즈, 순심학교 교지 『순심』, 그리고 분도출판사의 단행본들까지, 분도출판사의 출판 디자인 연구는 이제 초입에 진입했다. 분도출판사의 출판 디자인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디자인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지역 디자인 역사 기술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 연구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디자인사적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최석우, (1983), 「한국분도회의 초기 수도생활과 교육사업」, 『사학연구』, 제36호, 한국사학회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 선지훈, (2007),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교회사연구』, 29집, (재)한국교회사연구소
- 최윤하, (2007), 「도서 판권기의 기술요소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선지훈, (2009), 「왜관 수도원의 수도 생활과 선교 활동: 시련과 극복의 역사」, 『교회사연구』, 33집, (재)한국교회사연구소
- 권은정, (2012), 『책으로 노래하고 영화로 사랑하다』, 분도출판사
- 요하네스 마르, (2009), 『분도통사』, 분도출판사
- 이명규, (2021), 「한국목록규칙에서 판과 책의 서지요소 기술형식 개선안 연구」, 정보학회지, 52권 제3호, 한국도서관
- 분도출판사 카톨릭인터넷 서점 <https://www.bundobook.co.kr>
- 《가톨릭신문》 웹사이트 <https://www.catholictimes.org>
-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https://library.catholic.ac.kr>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웹사이트 <http://osb.or.kr>